

## 월드컵 속에 6.13 지방선거

김 정 원\*

“덜커덕 덜커덕 잉~잉”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월드컵 열기 속에 “대~한민국”을 외치는 지금 나는 6.13 지방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 인쇄소 경비에 나와 있다. 좁은 인쇄소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여름을 알리는 더위 그리고 모기와에 소리 없는 신경전이 시작 된 것이다. 2002 한일 월드컵에 국민 대다수가 빠져있어 6.13 지방 선거에 사상 최저에 선거 참여율이 걱정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거의 한달 째 계속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불굴에 선전으로 인해 선거는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선거와 관련된 벽보와 가끔씩 들려오는 유세장에 소리만이 선거를 느끼게 할 뿐이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교대시까지 인쇄소 경비를 마치고, 다시 일상업무로 돌아와 월드컵에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려 할 때쯤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업무가 내려오고 있었다. 선거유세와 관련된 동원과 선거용지 에스코트 또한 각 선거구 도착 후 선거에 사용될 용지 및 투표함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임무가 떨어진 것이다. 속으로 내심 바라지 않던 일이 벌어졌지만 그 누가 말했던가. “피해 갈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명언을 생각하며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 및 유의사항들을 경찰서에서 집체교육을 받고, 첫 번째 단계인 선거유세장 안전경비에 3번쨰에 동원이 있는 후 어느새 선거용지가 각 선거구 지정된 장소에 오게 되었다. 내가 있는 이곳은 면사무소로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옮긴 후 선거가 끝나서 개표가 완료되는 날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국민대부분이 월드컵을 느끼고 즐기는 이때 누군가가 아

\* 전북지방경찰청 부안경찰서 주산파출소(수경)

닌 우리 경찰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한 것이다. 투표 용지와 투표함이 면사무소에 옮겨졌고, 경찰관 및 전·의경들은 선거용지와 투표함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며 다음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선거 당일 선거가 있는 각급 학교 및 지정된 장소에 오전 6시에 배치되어 선거구 100미터 전방에서 만일에 일어날 사태에 대비해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었다. 내가 있는 이곳은 시골이어서 그런지 이른 시간부터 어르신들과 작업복을 입은 주민들이 농사일이 바빠다며 얼른 하고 가야지 하며 오는 것이 아닌가. 부지런한 농부들을 보며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고 몸을 움직여 보았다. 오전 10시쯤이 되어서는 가끔 한두명씩 삼삼오오 사람들이 오고 갈뿐 별 다른 일은 없는 듯 했다. 그러나 생각도 잠시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모여드는 것이 아닌가? 그곳도 선거장 입구 쪽에서 사람들의 손짓과 함께…… 깜짝 놀라 그곳으로 뛰어가면서도 별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도착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 86세인 할아버지가 선거를 하기 위해 나왔다가 쓰러져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신속히 119와 파출소에 응급환자에 대한 연락을 취하고 환자에게 편안한 자세 유지와 함께 벨트와 단추 신발을 벗겨 원활한 혈액순환과 호흡

을 도우면서 조금씩 말을 시키며 119 차량을 기다렸다. 5분쯤 후에 도착한 119 차량에 할아버지를 태워 보내고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들을 때 그동안 쌓인 피로가 씻겨 내려 가는 듯 했다. 오후 동안 쌓인 별 탈없이 시간이 지나갔고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서 투표함이 선관위의 차량에 옮겨지면서 우리는 다시 선거개표소 경비에 동원되어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었다. 선거와 월드컵이 국민들에게는 그저 바라보면서 지나갈지 모르지만 우리 경찰관들에게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순간순간들 이었다. 개표가 시작되면서 마무리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며 나 자신에게 힘을 내라 동요했다. 개표시간은 왜 그리도 더디게 느껴지던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선거 투개표에 동원된 인원에 대한 해산이 전달되었고, 비로소 길고도 길었던 선거일정이 마무리되었다. 그동안의 긴장이 해소되면서 잠이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 어서 잠을 취할 수 있는 파출소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차에 올랐을 때, 나른함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2002 한일 월드컵과 6.13 지방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경찰관과 전·의경 들에게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면서 스텝 버스 시트에 몸을 맡겼다.